

특집 /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의 의의와 특징



한국도서관기준, 2003년판 발행의 대강, 새로운 시작

이용훈*

우리 협회에서는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1981년 제정되어 발표된 이후 20여 년 간 개정되지 않고 있는 '한국도서관기준'의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2000년 4월 관종별 전문가(교수 및 실무자) 10명으로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위원장 손정표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구성하고 3년 여 작업 끝에 2003년 12월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을 발표하였다.

도서관 기준은 도서관 봉사의 적절성과 질의 검증 또는 측정을 위한 척도이다. 또한 도서관 장래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자극제이자 사서 등이 도서관 봉사를 구상·계획·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침서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가진 도서관 기준은 늘 현실을 앞서 미래를 여는 발전의 동력이자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1981년 이후 20여 년 동안 도서관 기준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우리들 스스로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제정·발표된 '한국도서관기준'은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특별히 최근 들어와 <대학설치기준령> 등 도서관과 관련한 여러 법적 기준들이 폐지되고, 각종 평가사업이 도서관 기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이 또한 도서관 발전을 제대로 유인해 내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서 도서관 전문가 스스로 기준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런 시점에 새로 발표된 '한국도서관기준'은 21세기 우리나라 도서관 수준을 크게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미 세계 각국도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도서관 기준의 제정 또는 기존 기준의 상향 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도서관 주변 환경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도서관들이 이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동적 도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번에 새로 개정한 기준에서는 새로운 시대적 특성과 요구,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도서관 기준은 5개 관종, 즉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나누어 각각 작성하되, 전체적인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관종별로는 사명과 목적, 조직 및 인적자원, 자료, 시설, 예산, 이용자 봉사, 평가 등 모두 7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다만 학교도서관은 그 특성상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별도로 '교육'의 장을 두어 모두 8장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장은 원칙을 우선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세세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모든 관종별 기준 말미에는 위원들이 기준 작성에 참고한 자료들의 목록을 수록함으로써 향후 개정과 추가적인 연구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도서관 기준의 수준은 현재 도서관 운영에 적용되고 있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등을

*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 blackmt@hitel.net

비슷한 여러 법적 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다가 학교도서관의 경우 새로운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기준에 적용되던 양적 기준조차 삭제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 기준보다는 약간 높거나 평균치 정도의 수준, 즉 권장 기준 형태를 취하였다. 또한 모든 관중에 걸쳐 장애인·노인 등의 이용자를 위한 시설 등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발행한 책자의 부록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중 도서관 시설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두었다. 끝으로 추가적인 조사나 연구 등을 위해 관중별로 외국의 대표적인 기준의 리스트를 수록해 두었다.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는 2000년 4월 구성된 이후 2000년에 3회, 2001년 3회, 2002년 12회, 2003년 9회 등 총 27회의 공식적인 회의 뿐 아니라 수시로 연락하고 협의하면서 도서관 기준을 작성하였으며, 2003년 5월 20일부터 1개월간은 지상공청회를 통해 도서관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다시 이를 반영하여 수정을 거듭한 끝에 2003년 7월 11일 최종적으로 '한국도서관기준'을 확정하였다. 협회와 도서관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서관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개인적인 사정을 마다하고 불철주야 기준 작성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손정표 위원장을 비롯한 열 분 위원들의 공이다. 위원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고,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다보니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을 비롯한 도서관 선진국의 기준에 비하여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적지 않으나, 협회의 입장에서는 우선 새로운 도서관기준을 개별 도서관 운영과 우리나라 도서관계 전반의 발전을 이끌어 가는 노력의 준거로 삼고자 하여 서둘러 책자를 발행하여 세상에 내어놓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만일 도서관기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위원들이 아닌 협회의 책임이며, 따라서 우리 협회는 도서관기준에 관하여 상시의 조사·연구와 개정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상설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도서관기준의 개선을 위해서는 본 기준을 도서관 현장에서 꼼꼼하게 검토·적용해 보고 그러한 결과를 협회에 전달하여 적용 가능성과 미래 지향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준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이제 새로운 한국도서관기준이 제시되었기에, 기준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서관 문화 창출에 다 함께 매진할 때이다. 협회는 이 기준을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중앙부처는 물론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6개 지방교육청 관련 부처에도 전달하여 도서관 정책이나 행정 추진에서 우리의 기준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개별 도서관들도 새로운 기준을 충분히 인지하여 도서관 운영과 발전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이번 기준 작성에 참여한 위원 10분의 성함을 이곳에 남겨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국 도서관 역사에 길이 남기고자 한다. 위원장 손정표(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공공도서관 부문 김지봉(경기도립과천도서관 열람봉사과장), 홍현진(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대학도서관 부문 고기식(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부장), 양재한(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수), 윤희윤(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교도서관 부문 변우열(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교수), 전문도서관 부문 김창근(인하대학교 도서관 부관장), 한두완(전 서울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특수도서관 부문 육근해(한국점자도서관 사무국장). 아울러 많은 건설한 의견을 제시하고 성원을 아끼지 않은 도서관계 모든 분들께도 일일이 이름을 남길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제 새로운 기준의 발표로 이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기준이 우리나라 도서관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협회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히면서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발행에 대한 대강의 보고를 마친다. 